



성동구, 저소득 노인 초청 사랑의 경로행사

서울 성동구는 최근 '경로의 달 및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내 17개 동 곳곳에서 저소득 노인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성수1가제2동 경로행사에 참석한 정원오 구청장이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9.0 X 7.7 cm

노인의 날 맞아 각동마다 기념행사 열려

성동구, 17개동 제23회노인의날맞아기념행사개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8일, 10월 경로의 달 및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로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경로행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성동구 17개 동 곳곳에서 저소득 어르신들 200~300여명을 모시고 1부에서는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 2부에는 축하공연 등 경로잔치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등 34명과 모범 경로당 19개소에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성수동 이00씨는 평소 청소년 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역할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귀감이 되어 모범노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옥수동 거주 이

00씨는 떡집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복지관 경로식당에 정기적으로 떡을 기부하는 등 주변의 어려운 독거어르신을 살피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노인복지기여자로 선정되었다.

이어진 경로잔치에서는 각 동 직능단체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와 다과 등을 참석 어르신들께 대접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연, 어린이집 원아 공연 등 흥겹고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행사장은 박수와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성동형 돌봄」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촘촘히 살피고, 어르신과 구민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경섭 기자

10.0 X 18.1 cm

노인의 날 맞아 각동마다 기념행사 열려

성동구, 17개동 제23회노인의날맞아기념행사개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8일, 10월 경로의 달 및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로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경로행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성동구 17개 동 곳곳에서 저소득 어르신들 200~300여명을 모시고 1부에서는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 2부에는 축하공연 등 경로잔치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등 34명과 모범 경로당 19개소에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성수동 이00씨는 평소 청소년 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역할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귀감이 되어 모범노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옥수동 거주 이

00씨는 떡집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복지관 경로식당에 정기적으로 떡을 기부하는 등 주변의 어려운 독거어르신을 살피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노인복지기여자로 선정되었다.

이어진 경로잔치에서는 각 동 직능단체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와 다과 등을 참석 어르신들께 대접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연, 어린이집 원아 공연 등 흥겹고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행사장은 박수와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성동형 돌봄」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촘촘히 살피고, 어르신과 구민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경섭 기자

16.2 X 13.9 cm